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로 본 청년 '쉬었음'의 구조화: 상태 지속성의 증거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왜 패널 데이터를 통해 '쉬었음' 현상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1. 문제의 배경 및 선행 연구의 한계

2026년 1월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약 46만 9,000명으로 집계되며 30대까지 포함하면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국가데이터처, 2026. 1.). 이 수치는 단순한 실업 통계가 아니다. 이는 대기업·정규직의 1차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부문 사이의 이동 통로가 협소한 구조적 특성하에서 구직도 학업도 아닌 '순수 비활동'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축적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되고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rulampalam, 2001; Gregg & Tominey, 2005). 또한 과거 비활동 경험이 이후 고용 가능성과 임금에 남기는 부정적 흔적을 일컫는 이른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가 고착화되면 그 비용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복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Bell & Blanchflower, 2011; OECD,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쉬었음' 현상의 규모 및 결정요인을 조명해 왔다. 예

컨대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이슈브리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거시적·동태적 확산 경로를 다루었으며(정지운, 2026), 한국은행의 연구에서는 '쉬었음'의 미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윤진영 외, 2026). 그러나 이 두 연구를 포함한 많은 '쉬었음' 관련 연구는 반복 횡단면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개인이 '쉬었음'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쉬었음' 상태로 돌아오는 등의 경로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KEEP II 데이터의 특성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는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 558명을 시작으로 동일 개인을 2023년(8차)까지 매년 추적한 종단 패널이다. 특정 시점의 단면을 포착하는 횡단면 자료(예: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종단 패널 자료인 KEEP II는 누가, 언제, 얼마나 오래, 그리고 반복하여 '쉬었음'에 머무는지에 대하여 개인 수준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데이터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강점이 있다.

본고의 이슈분석 I에서는 표본 구성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쉬었음' 청년의 기본적인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슈분석 II에서는 세 가지 계량 모형을 통해 '쉬었음' 상태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Wooldridge(2005)의 동적 패널 모형을 통해 과거 '쉬었음' 경험이 이후 '쉬었음'을 유발하는지의 여부(상태 의존성)를 개인 이질성과 분리하여 검증한다. 둘째,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을 통해, '쉬었음' 상태의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출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부의 지속 기간 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 '쉬었음'의 진입·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과 가족 배경의 효과를 규명한다. 셋째, 시퀀스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이행 궤적을 전형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위험집단의 특성을 드러낸다.

1. '쉬었음'과 NEET의 개념적 구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고용·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상태로 구직 중인 실업자와 취업준비생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이 글의 '쉬었음'은 NEET이 비해 좁은 개념으로 '순수 비활동' 상태, 즉 구직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가사·육아·재학 등 어떤 뚜렷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KEEP II를 활용한 '쉬었음'의 조작적 정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동시에, 비경활 사유가 결혼·육아, 의욕상실, 경제적 부담 없음, 건강문제, 일하기 싫음, 기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단 '기타' 응답의 이질성을 우려하여 이를 제외한 분석도 강건성 검증에 활용하였다.
※ 상세 코딩 절차는 동향데이터브리프 참조.

Ⅱ 분석 표본의 구성

1. 표본 구성

KEEP II 원시 패널 1만 558명에서 아직 재학 중인 경우(3,345명)와 군 복무 해당자(3,731명)를 제외한 최종 분석 표본은 6,022명이며, 1만 6,014건의 person-wave 관측치로 구성된다(불균형 패널). 학력별로는 고졸자 2,246명(37.3%), 전문대 졸업자 1,649명(27.4%), 4년제 대학 졸업자 2,114명(35.1%)으로 나타나 비교적 균등한 구성을 보인다. 〈표 1〉에서는 KEEP II의 표본 구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표 1. KEEP II 표본 구성

단계	인원(N)	비고
KEEP II 원시 패널(1~8차)	10,558	
노동시장 진입 시점 확정	6,145	
(-) 재학 중	-3,345	제외
(-) 군복무	-3,731	제외(중복 포함)
최종 분석 표본	6,022	확정

주: 노동시장 진입 시점은 개인별 최고 도달 학력에서 학교 밖 상태가 처음 관측된 차수. 군 복무자(비경활 사유 코드 8, 14) 제외.

2. 패널 탈락 편향 검증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특정 응답자가 추적 과정에서 표본을 이탈하는 탈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탈락이 무작위적이지 않을 경우, 추정 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KEEP II에서는 전체 6,145명 중 패널 탈락자가

1,201명(19.5%)이며 이때 탈락의 패턴이 무작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졸자의 탈락률(34.6%)은 4년제 대학 졸업자(4.6%)의 7.5배에 달하며, 이른 시점에 패널에서 탈락한 응답자일수록 탈락률이 높고(3차 37.7% vs 7차 7.7%), 이탈 시점에 '쉬었음' 상태인 개인의 패널 탈락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264, p = 0.029).

성별 역전 현상도 주목된다. 단순 비교에서는 여성 탈락률(18.6%)이 남성(20.6%)보다 낮지만 학력·이탈 시점을 통제하면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484, p 〈 .001). 이는 여성 중 4년제 졸업자 비율이 높고 4년제(4.6%)의 탈락률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구성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역확률 가중치(IPW) 보정

KEEP II 데이터에서 패널 탈락의 편향이 확인됨에 따라, 이슈분석 II의 패널 모형에서는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W)를 적용하여 편향을 보정하였다. 성별·학력·자존감·부모학력·가구소득을 공변량으로 한 로짓 모형에서 개인별 잔류 확률을 추정하였으며(AUC = 0.782) 탈락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 분포의 상위 1%에 윈저라이징을 적용하여 극단값을 통제하였다.
※ 상세 절차는 동향데이터브리프 참조.

Ⅲ
'쉬었음'의 기본 특성: 누가, 얼마나 쉬는가

1. '쉬었음' 청년의 규모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동시장 진입 시점 기준 '쉬었음' 비율은 9.95%이며 관측 기간 중 1회 이상 '쉬었음' 상태를 경험한 비율은 20.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5명 중 1명이 적어도 한 번은 '쉬었음'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쉬었음'은 소수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청년의 교육-노동시장 이행에서 상당수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위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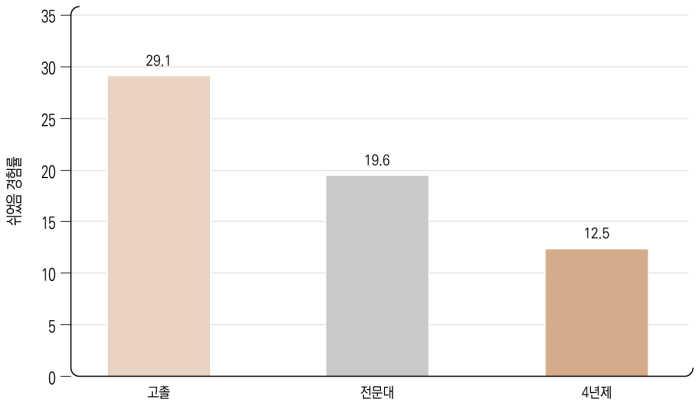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전체	고졸	전문대	4년제
표본 수(N)	5,577	1,950	1,545	2,069
쉬었음 비율(%, 협의)	9.95	—	—	—
쉬었음 경험률(%)	20.28	29.13	19.61	12.47
누적 횟수(평균±SD)	—	0.43±0.83	0.24±0.55	0.14±0.40
여성 비율(%)	58.97	—	—	—

주: 개인 수준(1인 1행, 노동시장 진입 시점 기준). 이분 변수는 비율(%), 연속 변수는 평균±표준편차. 석사(N=13) 제외.

그림 1. 학력 경로별 '쉬었음' 경험률

(단위: %)



주: 관측 기간 중 1회 이상 '쉬었음' 상태를 경험한 비율. 석사(N=13) 제외.
자료: KEEP II 1~8차.

2. 학력 경로에 따른 '쉬었음' 경험과 반복

KEEP II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학력 경로별로 '쉬었음'의 양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졸자의 '쉬었음' 경험률(29.1%)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경험률(12.5%)의 2.3배이며 누적 횟수(0.43)는 고졸자가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x^2 = 173.12, p 〈 .001). 고졸 청년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선행연구의 지적(남재량, 2011; 김유빈·최충, 2018)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서의 빈번한 이직을 통해 취업과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관측 기간 내 '쉬었음' 경험률과 누적 횟수 모두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만 이 집단은 KEEP II 8차(2023년) 기준 노동시장 진입 후 경과 기간이 고졸자에 비해 짧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관측된 학력 경로별 격차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쉬었음'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행 중기 이후의 궤적은 향후 KEEP II의 추가 차수(9차 이후)가 축적됨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쉬었음' 누적 횟수 분포를 살펴본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의 79.4%는 관측 기간 중 한 번도 '쉬었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졸자 집단에서는 2회 이상 '쉬었음' 경험을 반복한 비율이 9.2%로, 이는 4년제 졸업자(1.2%)의 7.7배 높은 수치이다. 특히 3회 이상 반복자(고졸의 3.3%)는 관측 기간의 절반 이상을 '쉬었음'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쉬었음' 상태가 고착화된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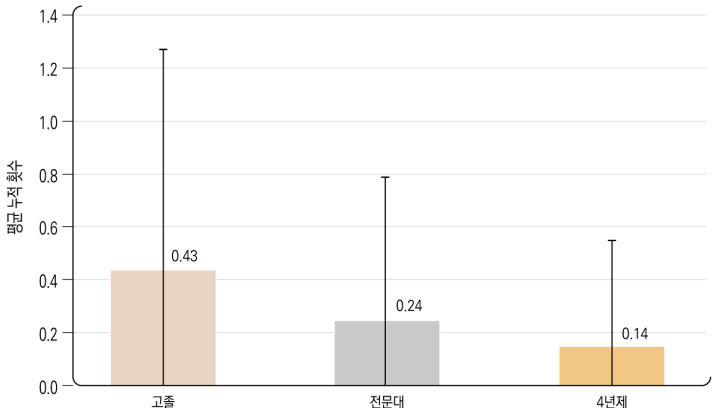
표 3. '쉬었음' 누적 횟수 분포(개인 수준, %)

횟수	전체	고졸	전문대	4년제
0회(비경험)	79.4	71.4	80.3	87.3
1회	15.7	19.5	16.2	11.5
2회	3.3	5.9	2.8	0.9
3회 이상	1.5	3.3	0.7	0.3

주: 개인 단위(1인 1행) 집계. 석사(N=13) 제외.

그림 2. 학력 경로별 '쉬었음' 평균 누적 횟수

(단위: 회)



주: 개인 단위 평균값, 오차 막대는 표준편차. 석사(N=13) 제외.
자료: KEEP II 1~8차.

3. 성별과 학력의 교차: 비대칭적 보호 효과

〈표 4〉에서는 성별·학력 경로별 '쉬었음' 비율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쉬었음'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고졸자 10.7% → 4년제 대학 졸업자 12.3%), 여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졸자 12.3% → 4년제 대학 졸업자 7.6%). 즉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쉬었음' 비율이 낮아져 학력의 보호 효과가 관찰되지만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성별 간 차이를 고려하여 이슈분석 II의 '상태 의존성 분석'에서는 성별을 핵심 조절 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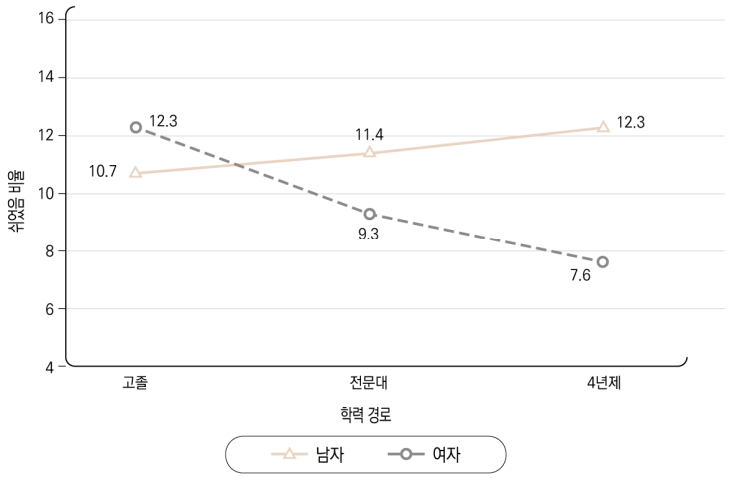
표 4. '쉬었음' 비율: 성별 × 학력 경로 교차(%, person-wave)

성별	학력	쉬었음 비율(%)	관측치(N)
남자	고졸	10.7	5,525
남자	전문대	11.4	1,461
남자	4년제	12.3	819
여자	고졸	12.3	3,055
여자	전문대	9.3	2,492
여자	4년제	7.6	2,648

주: 전체 성별 차이 $x^2(1) = 4.98$, $p = 0.026$. 석사 제외.

그림 3. 성별 × 학력 경로별 '쉬었음' 비율

(단위: %, person-wave)



주: person-wave 기준. 전체 성별 차이 $x^2(1) = 4.98$, $p = 0.026$. 석사 제외.
자료: KEEP II 1~8차.

Ⅳ
‘쉬었음’ 추이 및 진입 시점

앞서 살펴본 ‘쉬었음’의 규모와 반복성은 학력 경로별 관측 기간의 차이를 반영한다. 고졸자는 KEEP Ⅱ 3차(2019년)부터, 전문대 졸업자는 4차 전후부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7차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관측되므로 집단별로 ‘쉬었음’ 발생에 노출된 기간이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차수별 추이와 졸업 후 첫 진입 시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쉬었음’ 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집단별 이행 중기 이후의 궤적은 향후 KEEP Ⅱ 차수가 축적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차수별 추이

〈표 5〉에서는 학력 경로별 ‘쉬었음’ 비율을 패널 조사의 차수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졸자는 전 차수에 걸쳐 10~12% 수준의 ‘쉬었음’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이탈 초기(4~5차, 2020~2021년)에 비율이 높은 후 점차 하락하는 역U자 패턴을 보인다. 고졸자의 경우 현재까지 관측된 전 차수에 걸쳐 ‘쉬었음’ 비율이 10~12%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 집단에서 ‘쉬었음’이 이행 초기의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속성이 청년기 전반의 만성적 위험으로 고착화되는지의 여부는 향후 차수 축적을 통한 장기 추적을 통해 보다 명확히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단 4~5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021년)와 중첩되어 연령 효과와 기간 효과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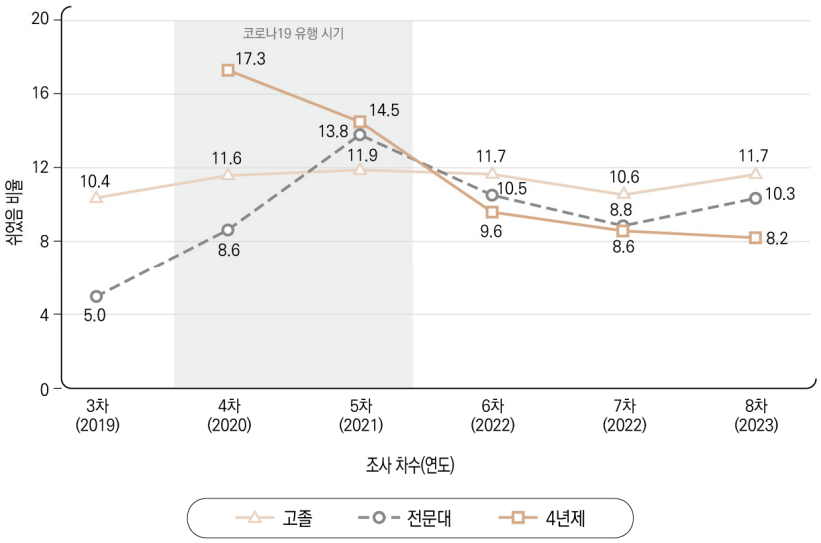
표 5. 차수별 ‘쉬었음’ 비율 추이: 학력 경로별(%, person-wave)

차수(연도)	고졸	전문대	4년제	전체
3차(2019)	10.4	5.0	-	10.0
4차(2020)	11.6	8.6	17.3	11.7
5차(2021)	11.9	13.8	14.5	12.5
6차(2022)	11.7	10.5	9.6	11.1
7차(2022)	10.6	8.8	8.6	9.5
8차(2023)	11.7	10.3	8.2	9.9

주: '—'는 해당 차수에 이탈 완료자 없음. 불균형 패널이므로 분모 크기가 차수마다 다름.

그림 4. 차수별 '쉬었음' 비율 추이: 학력 경로별

(단위: %, person-wave)



주: 불균형 패널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차(2019)에 이탈 완료자가 없어 표시하지 않음.
자료: KEEP II 1~8차.

2. 졸업 후 첫 '쉬었음' 진입 시점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KEEP II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졸업 직후 '쉬었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은 44.8%이며, 졸업 후 '쉬었음' 진입은 졸업 직후에 집중된다. 졸업 즉시 진입이 44.8%, 1차 조사 시점까지 누적은 65.1%, 2차 조사 시점(졸업 후 약 2년)까지 누적은 78.0%로 졸업 후 2년 이내에 '쉬었음' 경험자의 약 4분의 3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진입 시차는 0.43차로 고졸자(1.83차)에 비해 짧게 나타나지만 이는 현재 관측 가능한 기간 내의 상대적 양상이다. 다만 고졸자 내 진입 시차의 표준편차가 1.70으로 크다는 점은 같은 고졸 집단 내에서도 '쉬었음' 진입 시점이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개입 시점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개인별 이행 경로의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졸업 후 첫 쉬었음 진입 시점 분포('쉬었음' 경험자)

졸업 후 경과(패널 차수)	N	비율(%)	누적(%)
0차(졸업 즉시)	555	44.8	44.8
1차 후	251	20.3	65.1
2차 후	160	12.9	78.0
3차 후	135	10.9	88.9
4차 후	76	6.1	95.1
5차 후	61	4.9	100.0

주: '쉬었음' 경험자(N=1,238)만 대상. 석사 제외. 주: 개인 단위(1인 1행) 집계. 석사(N=13) 제외.

다만 본 장의 기술통계 분석만으로는 '쉬었음' 진입 시점의 집중 현상이 특정 집단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개인 특성)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쉬었음' 경험 자체가 이후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기인하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는 이어지는 이슈분석 II에서 Wooldridge(2005)의 동적 패널 모형, 이산 시간 위험 모형, 시퀀스 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규명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쉬었음'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학력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다. 고졸자의 '쉬었음' 경험률(29.1%)은 4년제 대학 졸업자(12.5%)의 2.3배로 나타나며 두 집단 간 누적 횟수(0.43)의 차이는 3배, '쉬었음'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은 (9.2%)은 7.7배로 나타난다. 즉 학력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쉬었음'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쉬었음'의 정도와 반복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쉬었음'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졸자의 3.3%는 관측 기간의 절반 이상을 '쉬었음'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이 단순히 개인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경험 자체가 반복을 유발하는 구조적 함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이슈분석 II의 상태 의존성 검증 파트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다.

셋째, 노동시장 진입 초기 시점의 청년이 '쉬었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 직후 2년 이내에 '쉬었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이 78.0%에 달한다는 점은 이 시기

가 '쉬었음' 예방 정책의 핵심 개입 구간임을 시사한다. 또한 고졸자 집단에서 '쉬었음' 비율이 관측 전 차수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대졸자 집단에서는 이행 직후 높았다가 하락하는 역U자 패턴을 보인다는 점은 집단별 위험의 시간적 분포가 상이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개입 시점과 강도를 집단별로 차등화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졸자 대상 '쉬었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졸업 직후 고졸 청년의 '쉬었음' 진입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고 만성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 후 6개월~1년 이내의 골든타임에 고용서비스 접촉 빈도를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고학력 남성의 '쉬었음' 비율이 저학력과 유사하거나 높다는 분석 결과는 대졸 남성 대상 프로그램에서 학력 요인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학력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학력 제고 경로가 '쉬었음' 예방 측면에서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쉬었음' 집단이 패널 탈락 표본에서 과소 대표된다는 점에서 본 분석에서 제시한 추정치는 실제보다 작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이슈분석 II에서는 역확률 가중치(IPW) 보정을 통해 편향을 조정하고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쉬었음' 현상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KEEP II 8차(2023년)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노동시장 진입 후 경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본고에서 관측된 학력 경로별 격차는 이행 초기 국면에 국한된 해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 전반에 걸친 '쉬었음'의 장기적 궤적, 특히 '쉬었음' 경험이 30대 이후의 고용 이력에 남기는 상흔 효과의 규명은 KEEP II의 9차 이후 차수 축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청년 '쉬었음' 현상과 같이 장기적 이행 과정에 뿌리를 둔 노동시장 이슈의 실증 분석에 있어, KEEP II와 같은 장기 종단 패널의 지속적 구축과 활용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Arulampalam, W.(2001). Is unemployment really scarring? Effects of unemployment experiences on wages. Economic Journal, 111(475), F585–F606.

Bell, D. N. F., & Blanchflower, D. G.(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267.

Gregg, P., & Tominey, E.(2005). The wage scar from male youth unemployment. Labour Economics, 12(4), 487–509.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Wooldridge, J. M.(2005). Simple solutions to 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 in dynamic, nonlinear panel data models with unobserved heterogeneit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1), 39–54.

국가데이터처(2026. 1.).「경제활동인구조사」.

김유빈, 최충(2018).「청년층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질」.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2011).「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진영, 오삼일, 이수민(2026).「쉬었음 청년의 미시적 결정요인 분석」. 한국은행 조사연구.

정지운(2026).「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KRIVET Issue Brief, No.3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로 본 청년 '쉬었음' 탈출의 동학: 경로 이질성과 결정요인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예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I 서론: '쉬었음'은 구조적 함정인가?

앞선 이슈분석 I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KEEP II)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 '쉬었음'의 기본 지형을 확인하였다. 고졸 청년의 '쉬었음' 경험률(29.1%)이 4년제 대학 졸업자(12.5%)의 2.3배에 이르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쉬었음' 경험자의 78.0%가 발생하는 등 '쉬었음'이 한국 청년의 교육-노동시장 이행에서 보편적인 위험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통계만으로는 '쉬었음'의 구조적 성격을 규명할 수 없다. 고졸 청년에게서 '쉬었음'이 반복적으로 관측된다는 사실은 이 집단이 원래 '쉬었음'을 경험하기 쉬운 특성(성격, 가정환경, 내재적 동기 등)을 내포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쉬었음' 경험 자체가 이후의 이탈을 유발하는 구조적 메커니즘 때문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정책 설계에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전자라면 개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접근이, 후자라면 '쉬었음' 상태 자체에 대한 조기 개입이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다.

본 이슈분석 II에서는 이 질문에 실증적으로 답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량모형을 활용한다. 첫째, Wooldridge(2005)의 동적 패널 프로빗 모형을 통해 과거 '쉬었음' 경험이 이후 '쉬었음'을 유발하는 인과적 효과, 즉 상태 의존성(state dependence)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개인 이질성과 분리하여 검증한다. 둘째, 이산시간 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통하여, '쉬었음' 상태의 지속 기

간이 길어질수록 탈출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부의 지속 기간 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 진입 위험의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셋째,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통해 청년들의 이행 궤적을 전형적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세 가지 분석은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단일 모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쉬었음'의 입체적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1. 모형 설계

Ⅱ
상태 의존성: '한 번 쉬면 또 쉬게 되는가'

상태 의존성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Wooldridge(2005)의 동적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발생하는 초기 조건 문제(initial conditions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초기 관측값과 설명변수의 개인별 시간 평균을 설명변수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Mundlak(1978) device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측되지 않은 개인 이질성 — 성격, 가정환경, 내재적 동기 등 측정되지 않는 시간 불변 요인 — 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거의 '쉬었음'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 미치는 순수 효과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정 유형의 청년이 반복적으로 '쉬었음'을 경험하는 현상이 그들이 원래 '쉬었음'에 취약한 특성을 내포하였기 때문(허위 상관, spurious correlation)인지, 아니면 '쉬었던 경험 자체가 이후의 이탈을 유발'(진정한 상태 의존성)하기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Heckman(1981)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진정한 상태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책적 개입의 근거가 된다. 즉 개인의 특성을 바꾸지 않더라도 '쉬었음' 상태 자체를 조기에 차단하면 이후의 반복적 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추정 과정에서 임의효과(Random Effects, RE) 프로빗 모형을 먼저 시도하였으나 RE 분산이 0에 수렴(rho → 0)하여 개인 간 이질성이 Mundlak device의 CRE(Correlated Random Effects) 항에 의해 충분히 흡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Pooled 프로빗에 개인 수준 군집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결합한 추정량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2. 추정 결과

〈표 1〉은 동적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모형 1은 전기 '쉬었음'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한 기본 모형이며 모형 2는 전기 '쉬었음' 변수와 학력 경로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확장 모형이다.

표 1. Wooldridge 동적 프로빗 추정 결과

변수	모형 1: 기본	모형 2: 상호작용
쉬었음(t-1)	0.504*** (0.121)	-0.019 (0.163)
전문대졸 × 쉬었음(t-1)		0.872*** (0.261)
4년제 이상 × 쉬었음(t-1)		0.943*** (0.252)
초기 조건(y_0)	0.503*** (0.099)	0.714*** (0.101)
자기효능감(z)	-0.108***	-0.108***
CRE 평균항	-0.156**	-0.156**
N	4,916	4,916

주: Pooled Probit + 군집 표준오차. Wooldridge(2005) CRE 적용. RE 분산이 0에 수렴하여 합동 프로빗 추정. 모형 2의 학력 경로 기준범주는 고졸이다. * p<.10, ** p<.05, *** p<.01.

모형 1에서 전기 '쉬었음' 변수의 계수는 0.504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전기에 '쉬었음'을 경험한 청년이 당기에도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개인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Wooldridge(2005)의 초기 조건 보정과 Mundlak CRE를 통해 관측되지 않은 개인 이질성이 충분히 통제된 상태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즉 전기 '쉬었음'의 효과는 '원래 쉬기 쉬운 특성을 가진 청년'에게 나타나는 허위 상관이 아니라, '쉬었음' 경험 자체가 이후의 이탈을 유발하는 진정한 상태 의존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 조건(y_0)의 계수도 0.50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초기에 '쉬었음'을 경험한 청년이 이후 경로 전반에서 이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이슈분석 I에서 확인된 "졸업 직후 '쉬었음' 진입률 44.8%"의 장기적 파급효과가 이 계수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행 초기의 경험이 이후 궤적을 규정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의 증거이다.

자기효능감의 계수는 -0.108로 심리적 자원이 풍부한 청년일수록 '쉬었음' 위험이 낮음을 보여 준다. CRE 평균항의 계수(-0.156) 또한 유의하여 자기효능감의 개인 간 '수준' 차이가 시간 내 '변화'와 독립적으로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KEEP II가 수집하는 심리 특성 변수의 정책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쉬었음' 예방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근거를 제공한다.

3. 학력별 차별적 상태 의존성

모형 2의 상호작용 결과는 통념과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고졸을 기준범주로 한 전기 '쉬었음' 변수의 계수는 -0.01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전문대졸과의 상호작용항(0.872, $p<.01$) 및 4년제 이상과의 상호작용항(0.943, $p<.01$)은 강하게 유의하다. 즉 상태 의존성은 학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며 대졸 청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한계효과 분석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된다. 전기 '쉬었음'의 한계효과는 전문대졸에서 9.2%p, 4년제 이상에서 8.1%p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고졸에서는 -0.3%p로 유의하지 않다. 이를 풀어 말하면 고졸 청년은 전기에 '쉬었음'을 경험했더라도 당기에 다시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으며 반면에 대졸 청년은 한 번 '쉬었음'을 경험하면 다시 '쉬었음'에 놓일 확률이 8~9%p 추가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는 기술통계가 보여 준 현상(고졸의 '쉬었음' 경험률이 대졸의 2.3배)과는 다른 층위의 발견이다. '쉬었음'의 발생 빈도는 고졸에서 높지만 '쉬었음'이 구조적 함정으로 작용하는 양상은 대졸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고졸 청년은 '쉬었음'을 경험하더라도 비교적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대졸 청년은 한 번 '쉬었음'을 경험하면 그 상태가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졸 청년에게 상태 의존성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이 협소하게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하에서, 교육 투자에 비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할 때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차라리 쉬겠다'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이력서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주의 시그널링 편견(signaling bias)이 강화되는 상흔 효과가 대졸 노동시장에서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대졸 노동시장에서는 이력서의 공백이 역량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고졸 청년이 접근하는 서비스직·육체노동 일자리로는 상대적으로 즉시 복귀가 용이한 반면, 대졸 직종은 경력 단절 후 재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강건성 검증: 종속변수 정의 변경

본 분석의 핵심 발견이 '쉬었음'의 조작적 정의에 좌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 정의(협의)에 더해 광의 정의(구직활동 미수행자 포함)와 엄격 정의(활동 코드 15 '기타' 제외)를 적용한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변수	기본(협의)	광의 정의	엄격 정의
쉬었음(t−1)	0.504*** (0.121)	0.532*** (0.070)	0.769*** (0.160)
초기 조건(y_0)	0.503*** (0.099)	0.454*** (0.061)	0.405*** (0.145)
자기효능감(z)	−0.108***	−0.092**	−0.072
CRE 평균항	−0.156**	−0.124**	−0.284***
N	4,916	4,916	4,916

세 가지 정의 모두에서 전기 '쉬었음'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특히 엄격 정의에서 계수가 0.769로 가장 크게 추정되는데, 이는 모호한 사유를 제거할수록 '순수한' 비경활 상태의 고착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남을 의미한다. 초기 조건 효과도 세 모형 모두에서 견고하게 유의하여, 이행 초기의 '쉬었음' 경험이 이후 경로를 규정한다는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은 종속변수의 정의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상세 절차는 동향데이터브리프를 참조.

Ⅲ
탈출의 동학: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인가

1. 이산 시간 위험 모형 개관

동적 패널 모형이 상태 의존성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은 그 의존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 생존 분석의 일환인 위험 모형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며 KEEP II와 같이 연 단위로 수집되는 패널 데이터에는 연속 시간이 아닌 이산 시간 모형이 적합하다.

본 분석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위험 모형을 구축하였다.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락하는 진입 위험(Entry Hazard)과 '쉬었음' 상태에서 복귀하는 탈출 위험(Exit Hazard)이다. 전자는 "누가, 언제 '쉬었음'으로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에, 후자는 "한 번 '쉬었음'에 놓이면 언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2. 추정 결과

〈표 2〉는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의 추정 결과를 승산비(Odds Ratio, OR) 형태로 제시한다.

표 2. 이산 시간 위험 모형 추정 결과(승산비, OR)

변수	모형 1: 기본	모형 2: 상호작용
경과 시간(dur_entry)	1.062	
쉬었음 지속(neet_spell)		0.243***
전문대졸(vs 고졸)	1.179	0.709
4년제 이상(vs 고졸)	1.033	1.409
여자(vs 남자)	1.055	0.623
자기효능감(z)	0.867**	1.345**
부모 대졸	1.698*	0.702
가구소득 3분위	0.935	1.392*
N	4,675	292

주: 로짓 모형 기반 이산 시간 위험 모형. 승산비(OR) 보고. 군집 표준오차 적용. * p<.10,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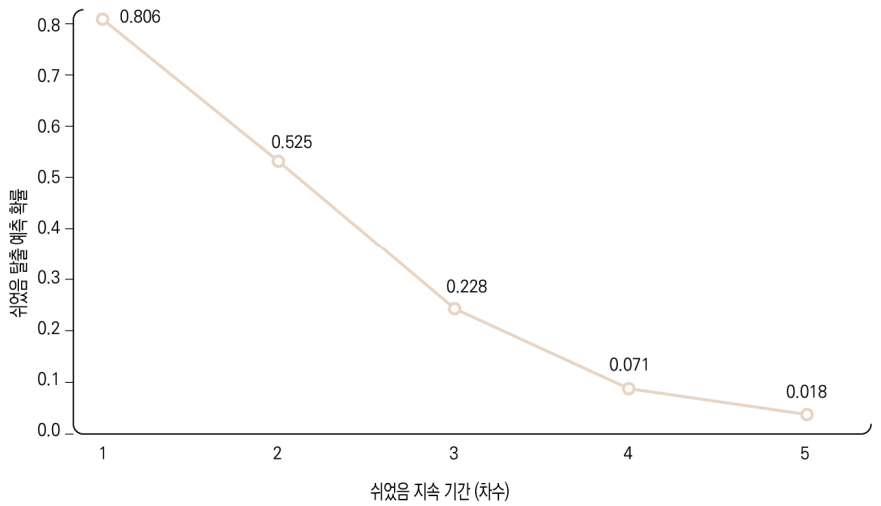
탈출 위험 모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쉬었음 지속(neet_spell)' 변수의 승산비가 0.24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점이다. 이는 '쉬었음' 지속 기간이 한 차수 늘어날 때마다 탈출 확률의 승산이 약 76%씩 낮아짐을 의미한다. 즉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부의 지속 기간 의존성이 강하게 관찰되는 것이다.

3. 탈출 확률의 비선형 하락

이 승산비를 예측 확률로 변환하면 그 함의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쉬었음' 1차수 시점의 탈출 확률은 80.6%로 매우 높다. 대다수 청년은 처음 '쉬었음'을 경험하더라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2차수에는 52.5%로 약 절반이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며 3차수에는 22.8%로 급락한다. 4차수 이후에는 7.1%까지 떨어져 사실상 자발적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그림 1. '쉬었음' 지속 기간별 탈출 예측 확률



이 결과가 정책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에 대한 개입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2년이 경과하면 탈출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3년이 경과하면 4분의 1 이하로 감소한다. 4년 이상 지속된 '쉬었음' 상태는 공적 개입이 없이는 복귀가 극히 어렵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의

시점(timing)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what)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 미시 수준의 발견은 앞서 KRIVET 이슈 브리프(정지운, 2026)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의 등고선 분석을 통해 관찰된 20대 후반 '쉬었음'의 고착화 현상과 부합한다. 거시 수준에서 관찰된 '쉬었음'의 하방 경직성이 미시 수준에서는 부의 지속 기간 의존성으로 구현되는 것이며 서로 다른 데이터와 방법론이 동일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있다.

4. 진입 위험의 결정요인

진입 위험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OR=0.867)이 유의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이 1 표준편차 높은 청년은 '쉬었음' 진입 위험이 약 13.3% 낮으며 탈출 위험 모형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승산비가 1.345($p<.05$)로 유의하다. 심리적 자원이 진입과 탈출 양측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OR=1.698)는 진입 위험이 오히려 높게 추정된다. 직관에 반하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는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이 자녀의 직업적 기대를 끌어올려 '기대 – 현실 괴리'를 확대하는 경로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고학력인 가정의 청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를 거부하고 '쉬었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가구소득 3분위의 탈출 위험 승산비(OR=1.392, $p<.10$)는 경제적 여유가 구직 활동을 지속할 여력을 제공한다는 양면적 효과를 시사한다.

Ⅳ 이행 궤적의 유형: 청년의 네 가지 길

1. 시퀀스 분석 개요

앞선 두 모형이 특정 시점의 전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퀀스 분석은 청년 개인이 걸어온 궤적 전체를 조망하는 전일적(holistic) 접근이다. 생물학의 DNA 염기서열 분석에서 유래한 최적 매칭(Optimal Matching, O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6,022명 각각의 이행 시퀀스 — 경제활동, '쉬었음', 취업준비 등의 상태 연쇄 — 간 거리를 산출한 후, Ward 군집 분석으로 전형적 이행 경로 유형을 분류한다.

이 방법의 강점은 전이 확률이나 위험률과 같은 요약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궤적의 형태(shape of trajectory)' 자체를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쉬었음' 비율이 20%로 같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집중된 것인지, 후반에 나타난 것인지, 또는 간헐적으로 분포된 것인지에 따라 정책적 함의가 전혀 달라진다.

2. 네 가지 유형

Ward 군집 분석 결과, 청년들의 이행 궤적은 네 가지 전형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3〉은 각 유형의 핵심 특성을 제시한다.

표 3. 시퀀스 군집 유형별 핵심 특성

유형	인원 (%)	평균 spell	'쉬었음' 비율 범위	주요 전이 패턴
① 안정 경활	5,733 (92.7)	1.0차수	3.0~4.1%	경활 → 경활 (93.8%)
② 중기 이탈	138 (2.2)	2.3차수	2.9 → 85.5%	경활 → '쉬었음' (21%)
③ 반복 진출입	255 (4.1)	2.1차수	16~52%	경활 ⇄ '쉬었음' (28%)
④ 장기 고립	54 (0.9)	4.2차수	46 → 83%	'쉬었음' → '쉬었음' (45%)

주: '쉬었음' 비율은 차수별 범위, spell은 '쉬었음' 에피소드 평균 지속 기간.

유형 ① 안정 경활(5,733명, 92.7%)은 전체 표본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경로이다. 차수별 '쉬었음' 비율이 3.0~4.1%에 불과하고, 전이 행렬에서 경활에서 경활로의 전이가 93.8%를 차지한다. 4년제 이상 학력이 61.0%로 가장 높으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대체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 유형의 존재를 통하여 한국 청년 대다수가 정상적 이행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이는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세 유형이 정책적 관심의 대상임을 부각한다.

유형 ② 중기 이탈(138명, 2.2%)은 이행 궤적의 극적 전환이 특징이다. 3~5차까지 '쉬었음' 비율이 2.9~4.3%로 유형 ①과 유사하지만, 6차에서 47.8%로 급등하고 7차에는 85.5%에 이른다. 이들은 처음에는 순조로운 이행을 보이다가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집단으로 첫 직장에서의 부적응이나 누적된 노동시장 충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졸 비율이 36.9%로 전체 평균(21.3%)보다 높아, 학력 자

원의 부족이 후반부 이탈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유형 ③ 반복 진출입(255명, 4.1%)은 경활과 '쉬었음'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회전문' 패턴이 뚜렷하다. '쉬었음' 비율이 3차 36.9%에서 4차 52.2%로 상승한 뒤, 7차 16.5%까지 하락하다가 8차에 다시 28.6%로 반등한다. 전이 행렬에서 경활에서 '쉬었음'(27.8%)과 '쉬었음'에서 경활(23.3%)이 모두 높아, 불안정 취업과 이탈을 순환하는 구조가 확인된다. 여성 비율이 53.3%로 4개 유형 중 가장 높으며 평균 spell 지속 기간은 2.1차수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과 같은 일자리 질의 문제가 지속적 고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은 육아·돌봄 부담과 노동시장 참여의 양립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유형 ④ 장기 고립(54명, 0.9%)은 규모가 가장 작으나 정책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평균 '쉬었음' 비율이 69.2%로 관측 기간의 대부분을 비경활 상태에서 보내며 '쉬었음' 비율이 3차 46.3%에서 6차 83.3%까지 상승한다. 전이 행렬에서 '쉬었음'에서 '쉬었음'으로의 전이가 45.0%를 차지하고 평균 spell 지속 기간이 4.2차수(약 4년)로 압도적이다. 이들은 앞서 위험 모형에서 확인된 "4차수 이후 탈출 확률 7.1%"의 실체적 대응 사례로, 자발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집단이다.

3. 유형별 정책 함의

네 유형은 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며 단일 정책으로 포괄하기 어렵다. 유형 ②는 5차까지 정상 이행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스크리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첫 직장 3년 차 전후에 직무 만족도와 이직 의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업-정부 연계 시스템이 요구된다. 유형 ③에 대해서는 불안정 취업의 질적 개선과 함께 재이탈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 핵심이며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돌봄과 노동의 양립 지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유형 ④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심리·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다부처 연계 집중 개입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핵심 발견의 정리

본 이슈분석 II에서 KEEP II 종단데이터를 활용한 세 가지 계량 분석이 수렴하는 핵심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상태 의존성이 확인되었다. 개인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도 전기 '쉬었음'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결과는 청년 '쉬었음'이 개인 특성에 의한 허위 상관이 아니라 경험 자체가 이후의 이탈을 유발하는 구조적 함정의 성격이 있음을 실증한다.

둘째, 상태 의존성은 대졸 청년에게 더 강하게 작동한다. 한계효과 기준으로 전문대졸(9.2%p)과 4년제 이상(8.1%p)에서 강하게 유의한 반면 고졸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기술통계가 보여 준 '쉬었음'의 발생 빈도와는 다른 층위의 발견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이중노동시장 구조하에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졸 청년의 반복적 이탈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탈출 확률의 비선형 하락과 '골든타임 1년'이 확인된다. '쉬었음' 1차수의 탈출 확률(80.6%)은 2차수(52.5%), 3차수(22.8%), 4차수 이후(7.1%)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개입의 시점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이다.

넷째, 청년 이행 궤적은 질적으로 이질적이다. 시퀀스 분석이 도출한 네 가지 유형 — 안정 경활(92.7%), 중기 이탈(2.2%), 반복 진출입(4.1%), 장기 고립(0.9%) — 은 단일 정책으로 포괄할 수 없는 집단들이다.

다섯째, 심리적 자원이 일관된 보호 요인으로 작동한다. 자기효능감은 동적 패널 모형과 위험 모형 양측에서 진입 억제와 탈출 촉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근거를 제공한다.

2. 정책적 함의

현재 정부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을 통해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하고 심리 상담과 일경험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이러한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 조기 발굴 시스템은 졸업 후 12개월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위험 모형에서

확인된 '골든타임 1년'은 2년 이후의 탈출 확률이 절반 이하로, 3년 이후에는 4분의 1 이하로 감소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발굴 시스템이 졸업 후 1년이 지나서야 작동할 경우, 이미 자발적 복귀가 어려운 상태에 진입한 청년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졸 청년 정책의 초점은 '하향 취업' 유도가 아니라 첫 직장의 질 개선이다. 상태 의존성이 대졸 청년에게 집중된다는 결과는, 이들에게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권유하는 정책이 오히려 반복적 이탈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완화,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 첫 직장 적응 지원이 대졸 청년 대상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유형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 고립 유형(54명)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나 '쉬었음' 비율 69.2%와 평균 spell 4.2차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고용보조금을 넘어 다부처 연계의 심리·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반복 진출입 유형(255명)에게는 불안정 취업의 질적 개선과 재이탈 방지 모니터링이 핵심이며 중기 이탈 유형(138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기 스크리닝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정부 연계 조기 경보 체계가 요구된다.

넷째, 학력별 모니터링 기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슈분석 I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4년제 졸업자의 '쉬었음' 진입은 이탈 직후에 집중되는 반면 고졸자의 진입 시차는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4년제 졸업자에 대해서는 졸업 직후 1년 이내의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지만 고졸 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탈 후 최소 3~4년까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결합이 요구된다. 자기효능감이 일관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는, 고용 서비스와 심리 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는 현행 체계를 넘어 양자를 결합한 통합 지원 모델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3. KEEP II 데이터의 정책적 가치

본 분석에서는 청년 '쉬었음'과 같이 장기적 이행 과정에 뿌리를 둔 노동시장 이슈의 실증 연구에서 종단 패널 데이터가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확인하였다. 횡단면

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 의존성, 진입·탈출 타이밍, 이행 궤적의 유형화가 모두 종단 패널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진 분석들이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특성 변수가 유의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KEEP II의 다차원적 조사 설계가 정책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KEEP II 데이터가 향후 축적될수록 보다 긴 이행 기간에 걸친 궤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쉬었음' 경험이 30대 이후의 고용 이력과 생애소득에 남기는 장기적 상흔 효과를 실증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청년기에 국한되지 않는 생애주기 관점의 HRD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KEEP II와 같은 장기 종단 패널의 지속적 구축과 활용이 긴요하게 요구된다.

참고문헌

Heckman, J. J.(1981).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In S. Rosen (Ed.), Studies in Labor Markets (pp. 91–13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undlak, Y.(1978). On the pooling of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 data. Econometrica, 46(1), 69–85.

Wooldridge, J. M.(2005). Simple solutions to 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 in dynamic, nonlinear panel data models with unobserved heterogeneit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1), 39–54.

정지운(2026).「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KRIVET Issue Brief, No.3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